

Art

아트인컬처

July 2015

Special Feature /
일본인 화가, '조선'을 그리다
근대의 풍경과 일상

Artist /
잉카 쇼니바레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

Abroad /
제12회 샬르자비엔날레
제10회 아트페어도쿄

Report /
젊은 작가 신생공간 24개



الشارقة

사막의 예술 공론마당

1993년 출범해 올해로 12회를 맞는 샤르자비엔날레가 지난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SAF아트스페이스를 비롯한 시내 전역에서 펼쳐졌다. Art는 샤르자아트파운데이션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오프닝 기간 동안 현지에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주은지가 큐레이터를 맡아, <과거, 현재,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25개국에서 온 작가 51팀을 선보였다. 그 중 7팀이 한국 출신 혹은 재미교포 작가로 한국 미술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한편 샤르자아트파운데이션의 셰이카 후어 알-카시미는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아랍에미리트의 큐레이터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샤르자는 아부다비, 두바이, 라스 알 카이마, 아즈만, 움 알 카이와인, 푸자이라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을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 국제 미술계에서 중동권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두바이에 아트페어가 있고, 아부다비에 미술관이 있다면 샤르자에는 비엔날레가 있다. 과연 아랍에미리트연합 중 미술의 왕좌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 호경운 편집장

마크 브라든포드(Mark
Bradford) <Untitled(Buoy)>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4

잡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해외 출타의 대부분이 비엔날레같은 대형 국제전시와 엮여 있다. 대개 짝수 해는 아시아, 홀수 해는 유럽에 몰리는 편이다. 이러한 동선은 작가와 큐레이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2015년 비엔날레 시즌의 포문을 연 샤르자비엔날레에 갔다. 중동 쪽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비엔날레가 아니라면 평생 한 번 가볼까 말까 하는 곳이라. 1970년대 산업계나 건설계에 종사했던 한국인에게 중동은 가장 친근한 곳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 중동으로 가는 직항이 생겼음에도 오히려 심리적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진 느낌이다. 그리고 아직 메르스 사태의 갈피가 잡히지 않고, 이따금씩 IS의 잔인무도한 만행을 뉴스 영상으로 접하게 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아마 한동안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중동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트씬에서도 비슷하다. 스타 작가나 큐레이터를 영입하거나, 명작 한두 점을 구입하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루브르나 구겐하임 같은 미술관을 통째로 들여온다. 국제 미술계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는 베니스비엔날레에도 몇 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권 국가들의 파빌리온이 줄줄이 개관했다.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부터 베니스비엔날레에서 국가관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미술계에서 중동의 급부상

특히 올해 아랍에미리트관은 중동 미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동의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들었다. <1980~오늘: 아랍에미리트의 전시들>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40년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현대미술 전시를 회고하는 아카이브 형태로 꾸몄다. 압둘라 알 사디(Abdullah Al Saadi), 모하마드 카잠(Mohammed Kazem), 하산 샤리프(Hassan Sharif) 등 아랍에미리트를 대표하는 작가 15인의 작품 100여 점과 전시 도록 및 인터뷰 등 각종 자료를 한자리에 모았다. 아랍에미리트관은 살라마 빈트 함단 알 나얀 재단이 커미셔너를 맡아 온 가운데, 올해는 전시



큐레이터로 샤르자아트파운데이션의 셰이카 후어 알 카시미(Sheikha Hoor Al Qasimi)를 지목했다. 2009년 출범한 샤르자아트파운데이션은 샤르자비엔날레를 주관하는 곳이며, 이 재단의 설립자이자 초대 대표를 맡은 셰이카 후어 알-카시미는 다름 아닌 샤르자의 공주이다. 그의 아버지, 즉 1972년부터 샤르자를 통치하고 있는 H.H 셰이크 술탄 빈 모하마드 알 카시미 역시 역사학자로 철학박사 학위까지 있는 지식인으로,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 관광 산업에도 힘쓰고 있다. 1971년 유전이 발견되어 1984년부터 원유를 수출하면서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발전과 변화를 거듭 도모하면서도 샤르자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1998년 유네스코는 샤르자를 '아랍의 문화수도'로 지정했다. 비엔날레의 메인 전시장이 위치한 샤르자전통지구(Sharjah Heritage Area)와 함께 2025년까지 '샤르자의 심장(Heart of Sharjah)'이라 불리는 도심 구역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국제 아트페어를 여는 두바이나 초대형 미술관 단지를 구축하는 아부다비와 달리, 샤르자는 땀 터뜨리는 '돈잔치'보다는 내실 있는 비엔날레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샤르자의 성격은 비엔날레가 열리는 전시장 건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비엔날레의 메인 전시장 격인 SAF아트스페이스는 1,895m²의 면적으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휴먼 스케일'이라 불려도 좋겠다. 또한 유수의 미술관이 그러하듯이 슈퍼스타를 기용해 랜드마크를 만드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로컬 건축가를 통해 중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도록 했다. 그 결과 기존 전통 가옥의 모습을 반영하듯 단층 혹은 복층 정도의 낮은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치 도심 내 촌락 같은 풍경이 나왔다. 다른 전시장으로 옮겨 가는 동안 중정이나 골목길을 지나게 되고, 전시장 내부로 들어가면 곳곳에 뚫린 창을 통해 자연광이 잘 들어와 작품 감상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샤르자비엔날레 특유의 인위적이지 않고 편안한 첫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샤르자비엔날레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혹은 신생 비엔날레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샤르자비엔날레는 1993년에 출범했다. 광주비엔날레보다 2년 먼저다. 샤르자비엔날레가 아트피플의 입에 서서히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셰이카 후어 알-카시미가 비엔날레팀에 합류한 2002년 이후다. 당시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22살의 어린 나이였다. 그럼에도 유년 시절부터 영국에서 공부한 덕분에 빠른 속도로 동시대 미술에 대한 '감'을 터득할 수 있었다. 근자에 들어 큐레이터나 작가를 선정하거나 비엔날레 구성의 큰 프레임을 그리는 데 있어 적절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샤르자비엔날레는 <과거, 현재, 가능성(The past, the present, the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UAE관 오픈링 현장에 참석한 셰이카 후어 알 카시미(왼쪽에서 세 번째) 오른쪽 페이지 위 · 마이클 주(Michael Joo) <Local Inscribed(Walking in the desert with Eisa towards the sun, looking down)> 질산은 2,000×2,700cm 2014~2015
아래 왼쪽 · 안 보(Danh Vo) <Come to where the flavors are> 구리, 판자에 금박 가변크기 2015
아래 오른쪽 · 양혜규 <An Opaque Wind>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5



possible))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이 주제는 예술 감독으로 선임된 주은지가 1967년 출간된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중에서 인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의 제목 〈모든 세계의 미래〉와의 상관성도 떠올리게 한다. 주은지는 “예술은 자유를 지향하는 유일한 장소다.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정신적으로라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르페브르가 과거와 현재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예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스페이스’의 전시

이번 샤르자비엔날레는 SAF아트스페이스 외에도 샤르자미술관과 5곳의 외부 장소에서 펼쳐졌다. 25개국에서 온 작가 51팀의 작품 중 2/3는 현지에서 새롭게 제작한 것이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한국 작가의 활약이 컸다. 재미교포 작가를 포함해 7팀의 한국 작가가 포함됐다. 임흥순, 김범, 믹스라이스, 양혜규, 마이클 주, 바이런 킴, 정창섭(1927~2011) 등이다. 1999년 김창영, 조성묵, 박현기, 함섭, 전광영 등 작가 5명이 샤르자에서 전시를 했던 이후로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샤르자비엔날레도 광주비엔날레와 마찬가지로 개막 기간 중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데 이번 회에는 작가 박찬경이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다.

일반적으로 비엔날레 전시는 한 작가마다 한 공간을 한 작품으로 채우는 방식을 취한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많은 작가들을 한꺼번에 통솔하기 어려워 사전에 대략적인 출품작을 보고 미리 자리를 할당해 놓는다. 그러면 참여 작가들은 개막 직전 단 며칠 동안 설치를 마쳐야 한다. 반대로 관객은 단시간에 대규모 전시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마치 게임에서 ‘미션 클리어’를 하듯이 이 작가 찍고 저 작가로 넘어가는 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엔날레 전시에서 본 단 하나의 작업을 갖고 작가의 예술세계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샤르자에서는 여기서 본 작가의 또 다른 작업을 저기서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 작가의 수를 줄이는 대신, 각각의 작가마다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범이 좋은 예다. SAF아트스페이스 중 가장 큰 건물에서는 지난해 플라토에서 선보였던 대형 평면 작업 〈무제(친숙한 고통 #13)〉을 걸었고, 시장 쪽에 새롭게 마련한 전시장 배이트 알 세르칼에서는 2010년 아트선재센터에서 봤던 〈스펙터클〉이 상영됐다. 또한 샤르자미술관에는 1990년대 초중반의 드로잉과 캔버스 작업을 전시했다. 이 섹션만 해도 거의 개인전에 버금갈 만큼 큰 규모로 수십여 점의 작품이 걸렸다. 그동안 잡지 도판으로만 보다가 실제로는 처음 보는 작업이 대다수여서 더욱 반가웠다. 레바논

작가 레이안 타벳은 층고가 높은 SAF에는 내전 때 배를 타고 탈출하던 기억을 되살려 낡은 배를 천장에 거꾸로 매달았고, 고전적인 구조의 샤르자미술관에는 긴 복도를 따라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용했던 파이프를 절단해 길게 늘어 놓았다.

샤르자 시내에서 왕복 3시간 넘게 차를 타고 동쪽 끝으로 가면 칼바 지역의 2,400m²에 달하는 대형 얼음공장에서 작가 아드리안 비야 호야스(Adrián Villar Rojas)가 한국 DMZ에서 가져간 씨앗을 포함한 세계 여기저기에서 모은 식물, 조개, 뿔조각 등과 건축자재를 혼합해 마치 지층처럼 만든 구조물을 볼 수 있다. 그의 작업 〈플렌타리움〉은 이 구조물뿐만 아니라 공장 앞에 펼쳐진 잔잔한 오만만(Gulf of Oman)의 물결, 오고 가는 동안 차창밖의 사막과 돌산의 풍경까지 아우른다. 또한 마이클 주의 작업을 보기 위해서는 코르니세 거리에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야 했다. 그 밖에도 각기 다른 전통 가옥 마당에 개별적으로 설치 작품을 한 경우가 많았다. 다미안 오르테가는 진흙으로 나선형 담을 쌓았고, 안 보는 ‘자유의 여신상’의 일부를 구리 조각으로 만들어 공사용 비계로 아슬아슬하게 세웠다. 일본 작가 타로 시노다(Taro Shinoda)는 사막 모래로 일본식 정원을 만들었고, 신시아 마르셀(Cynthia Marcelle)은 공사장 나무 기둥을 세워 설치한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특정적 작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작품이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적재적소의 장소에 작품이 배치돼 있었다.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는 〈무제2015(다마스쿠스의 장미수)〉에서 장미정원을 조성하고 오픈 키친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 줬다. 건물 안쪽에는 라운지를 마련해 벽면에 아랍 문자를 쓰고 바닥에 페르시아 양탄자를 깔아 쉼터를 마련했다. 셰이카 후어 알-카시미는 “어떤 예술가든 흔적을 남기며 지나간다”면서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이 샤르자의 삶과 관련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샤르자를 여행하고 연구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개막식 후 다시 찾은 비엔날레 전시장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다. 샤르자는 아부다비, 두바이, 라스 알 카이마, 아즈만, 움 알 카이와인,



압둘 하이 모살람 자라라(Abdul Hay Mosallam Zarara) 〈Bride's henna〉 나무 패널에 톱밥, 접착제, 아크릴릭 81×109cm 1995~2000
 왼쪽 페이지 위 · 다미안 오르테가(Damian Ortega) 〈Talking Wall〉 나무 캐스팅, 점토, 모래, 자갈, 건조, 암초, 스티로폼 조각, 폴리염화 비닐관 가변크기 2015
 아래 · 레이안 타벳(Rayyane Tabet) 〈Steel Rings〉 압연강 각80×10×0.6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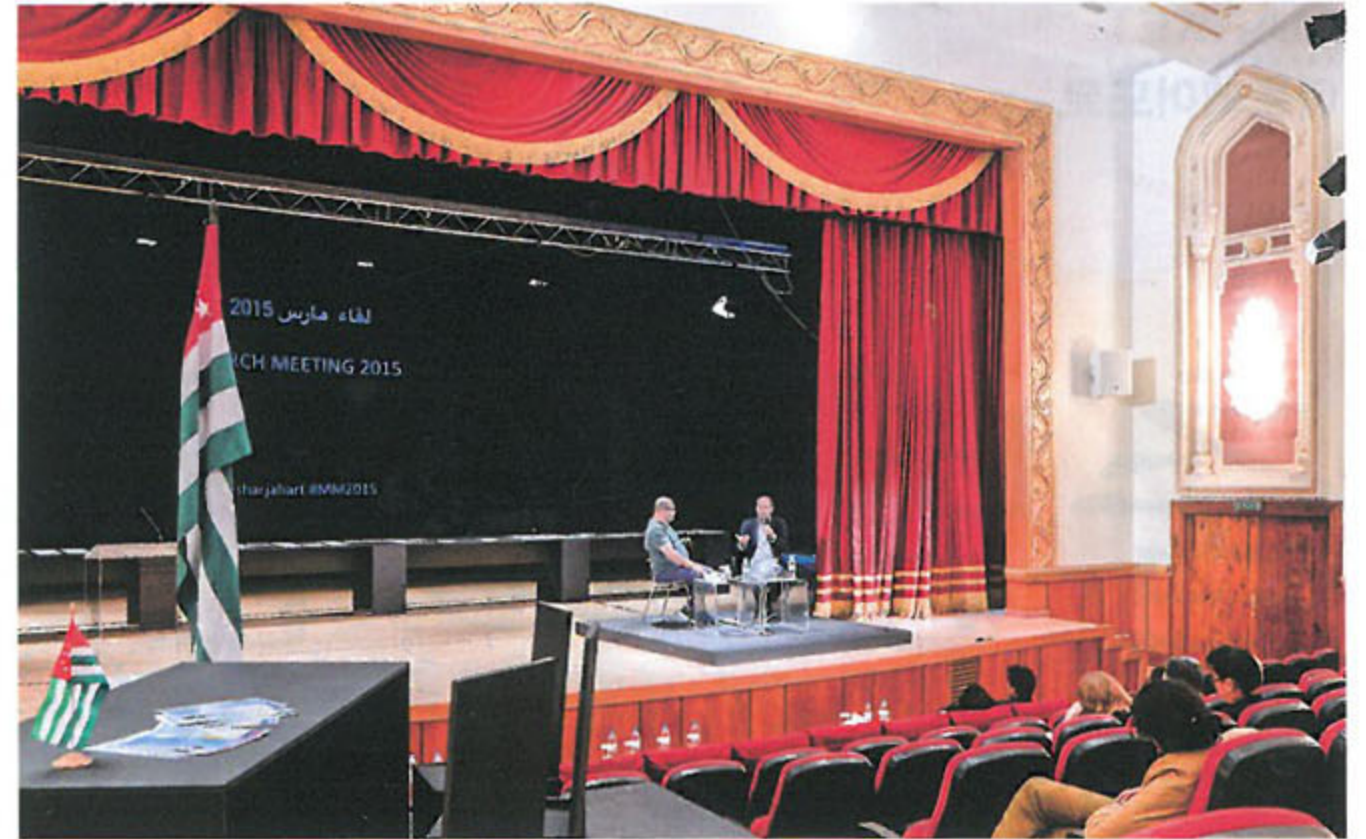
에릭 보들레르(Eric Baudelaire) <The Secession Sessions> 비디오, 퍼포먼스 2014~2015
 샤르자비엔날레 대상 수상작. 이곳에서 <마치 미팅> 중 일부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왼쪽 페이지 위 · 하산 칸(Hassan Khan) <Various Works and Intervention>
 가변크기 2014~2015 / 아래 ·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Untitled(Eau de Rose of Damascus)>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5

푸자이라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을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세 번째로 큰 나라지만, 서울의 1/3 정도의 크기로 인구는 1백만 명 남짓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온 노동자가 샤르자 토착민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엔날레 같은 문화를 향유할 만한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따라서 샤르자비엔날레에서는 여타의 비엔날레와 달리 관람객수 집계 같은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이 비엔날레의 의미는 무엇일까?

누구를 위한 비엔날레인가

비엔날레 개막 행사에는 세계 곳곳으로부터 참여 작가, 큐레이터, 저널리스트 등이 초청을 받고 모여 들었다. 또한 샤르자비엔날레 개막 기간에 맞춰 세계비엔날레협회(IBA) 제2차 정기총회가 샤르자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려, 칼리 라바(리악비엔날레 감독), 패트릭 무데케레자(루뎀바시비엔날레 감독), 크리스틴 톰(홍웁스), 수피엔 위씨(드림시티비엔날레 감독) 등도 방문해 있던 차였다. 이른바 '미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막 행사 기간 동안 마련된 프로그램 스케줄에 성실하게 임했다. 사실 그것 말고는 딱히 외부에서 할 일이 없기도 하고, 낯선 곳을 쏘다니기에는 다소 무섭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낮에 큰길에 나가 보아도 여자는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나마 여러 전시 장소를 따라 이동하는 길에 전통시장 '수크(Souk)'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았지만 그마저 오후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았다.

전시에 따라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샤르자에서는 영적인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 전시 준비로 개막 전에도 이미 몇 차례 샤르자에 왔던 참여 작가들은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비엔날레 같은 대형 국제전은 네트워킹과 비즈니스의 장이 되곤 한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금세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돌아가는 오늘날, 중동은 허잡 아래로 가려져 있는 얼굴처럼 여전히 신비로운 장소다. 낯선은 우리를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느낌으로 타인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제대로 보게 된다. 샤르자에서는 아트씬의 타성에 젖기 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그저 미술이 좋아서, 미술의 힘을 믿어서 미술을 시작했던 초심자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작품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즐기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이번 비엔날레 참여 작가에 국한된 성향일 수도 있다. 나는 샤르자비엔날레의 진정한 의미는 일반 관객이 아닌, 미술인 자신을 위한 것에 있다고 본다. 일종의 중견 미술인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처럼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예술 공동체의 '공론장'인 것이다.



비슷한 취지로 샤르자아트파운데이션은 2008년부터 샤르자비엔날레와 별도로 매년마다 '3월 모임(March Meeting)'을 개최해 공연, 스크리닝,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시 한 번 세계의 미술인을 샤르자로 초대한다. 지난해에는 이번 샤르자비엔날레 준비를 겸해 참여 작가이기도 한 양혜규, 이만 이사(Iman Issa), 안 보, 레이안 타벳, 신시아 마르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이름처럼 보통 3월에 개최했지만, 올해는 비엔날레 개막을 피해 5월 11일부터 5일간 열렸다. 샤르자아트파운데이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철저하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모더레이터이자 강연자를 맡았던 인도 작가 아쇼크 수쿠마란(Ashok Sukumaran)과 레바논 작가 왈리드 라드(Walid Raad)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한 것이다. 두 작가는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참여 작가이자 폐기구겐하임 앞에서 점거 시위를 벌였던 그룹 '걸프 레이버(Gulf Labor)'의 주요 멤버다. 그들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아부다비 사디야트 문화지구에 짓고 있는 루브르미술관과 구겐하임미술관 공사 현장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에 결성됐다. 특히 지난해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원형 홀 위에서 "Meet Workers, Demand Now!"라고 적힌 리플렛을 뿌리는 등 점차 액션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었다.

입국 거부를 당하자마자 이 작가들은 동료 미술인들에게 이메일을 썼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세계현대미술관협의회(CIMAM)를 시작으로, 샤르자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을 비롯한 주요 미술인들의 성명서가 지금까지 빗발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샤르자아트파운데이션의 입장은 여러모로 난처할 것이다. 특히 CIMAM은 전세계 주요 미술관에 종사하는 큐레이터가 다수 가입되어 있는 곳으로, 이 협회회의 주요 멤버 중에는 카타르 마타프미술관의 디렉터도 있다. 어쩌면 아랍에미리트에 새롭게 문을 열 루브르나 구겐하임 같은 미술관은 이번에 성명서를 낸 사람들 중 누군가의 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의'를 외치는 것이 컨템포러리 아트 공동체의 자존심이자 예술의 '가능성'인 것이다.